

“옛책 세월찾기 평생의 業”

산문박의 禪

서지학자 천혜봉 박사

베란다 창유리 앞으로 놓여 있는 책상, 그리고 쇼파 몇 개와 탁자를 제외하곤 사방이 온통 책과 각종 복사물, 자료들이 쌓여있는 15평 남짓의 서재 속에 틀여 사는 이, 천혜봉박사(72, 서지학자·성균관대 명예교수), 옛책을 보는 안목에 있어 손꼽히는 서지학자요, '학문적 해탈'을 추구해 온 그의 첫마디는 뜻밖의 깊은 참회요, 아쉬움이었다.

“평생을 옛책을 찾아 세계 곳곳을 떠나돌아다니며 아직도 명쾌히 밝혀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 좁이만 봤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 길을 절반도 채 오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천박사가 느끼는 부족감은 무엇인가. 학문의 깊에서 일어나는 구도(求道)와도 같은 '열정', 그리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를 '배고픔', 이밖에 무엇으로 달리 설명할 수 있을까.

“고서(古書) 및 옛 유물은 그 가치를 아는 이에게는 호사까지 소장품이 아

“먼저 쌓인 자료·문서 선조들 '삶의 역사' 담겨있으니 온고지신 사고로 탐구해야죠”

서지학 대가로 불리우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많다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기 때문



초조대장경 94종 144권 발굴고증 '20여년 노력' '국내 서지문헌 편년순으로 묶자' 여생의 화두

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며 한 사회의 역동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단, 살아 숨쉬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또 하나의 세계는 언제 태동했는지, 그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참으로 흥미로운 세계입니다.

오랜 세월의 퇴적으로 인한 상실, 옛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에게 이 '상실'은 그저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닌 탐구하고 규명해야 할 집요한 추적대상이다. 천박사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발전적 미래의 초석을 감조한다.

천박사가 서지학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중국대 사학과 재학시절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부터다. 자연히 책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옛 책을 보는 안목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우리 책에는 간인연대(刊印年代)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있다 하더라도 초간인(初刊印) 또는 구간인(舊刊印)을 그대로 되풀이 표시했을 뿐 간인된 실체와 맞지 않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지학은 책에 수록된 내용을 어법적으로 연구하는 원문서지(原文書誌), 본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해제(解題)하는 주제서지(主題書誌), 책 형태의 특징을 감별하여 고증함을 위주로 하는 형태서지(形態書誌)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천박사의 분야는 형태서지분야. 그러나 천박사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불교서지학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에만 전해질 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초조대장경)을 처음으로 발굴, 고증해냈기 때문이다.

“1965년 일본에 가서 (초조대장경)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에도 없을까'가 없을까...’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본부에 연구신청서를 내고, 없다고 포기하고 있던 우리 초조대장경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바로 다음해인 1966년 중국 북해도로부터 구주(九州)에 이르기까지 조사 작업을 벌인 끝에 7종의 사경을 발견했다. 20여년동안에 걸쳐 모두 94종

144권을 발견해내고 이를 토대로 고려 전기의 목판본체에서부터 불교사와 문화사 등 종래에 소홀히 다뤄졌거나 잘못 이해했던 부분을 바로잡았다. 화두 하나 내려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발견에 못지 않은 서지학자로서의 그의 진가는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했던 한국 고서를 조대성한 (한국전국전판사(韓國典籍印刷史))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 우리나라 활자를 고증해낸 것 역시 뛰어난 학문적 본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초조대장경)을 처음으로 발굴, 고증해냈기 때문이다.

서지학이라는 학문은 끊임없는 인내, 옛 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정성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쁜 차이가 아닌 오직 누가 많이 보고, 읽고, 그 시

간들을 견뎠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우리나라에 관한 자료를 거의 다 수집했음에도 천박사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다. 지금까지 이뤄온 많은 성과를 뒤로 하고 또다른 우리나라 초유의 작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관련한 국·내외의 모든 문헌을 편년순으로 묶어낼 생각입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이 마지막 내 여생의 숙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또다른 화두 하나를 든 셈이다. 학자는 어쩌면 자신이 축적해 놓은 학문적 결과보다는 학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여정을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이미 수많은 화두속에 자신을 던지며 힘없는 열정으로 삶을 채워 온 천박사. 그가 또다시 자신이 던진 화두를 풀기 위해 구학길에 오르기 시작한다.

한명우 기자

가족불화 풀 수 없나요

문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중시하는 줄 압니다. 가족이나 부부인연이라는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가족간에도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부부간에도 해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김인숙·서울 강남구 역삼동)

답 불교가 무슨 다른 종교와 구별해서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저 풀 한포기도 불교입니다. 살아가는 도리도 불교입니다. 인연법이란 공 심은데 콩나고 팔 심은데 팔 나는 것이니 불교에만 인연법이 있는게 아니지요. 내가 공을 심었으면 콩을 수확할 것이고 팔을 심었으면 팔을 거두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부사이가 안좋아서 이제 그만 인연을 끊어야겠다 한다면 그게 무슨 법이 어떻 다를 떠나서 다 내 탓인 것입니다.

가령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하고 남을 탓하니까 서로 원망만 쌓이고 더욱 잘못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다 내 탓인데 말입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심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불교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래서 누구 탓하기보다 다 내 탓이니까 내가 먼저 생각을 돌리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으로 감싸안는다면 거기서 화해가 절로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면 당장 잘라지고싶다 했던 부부사이에서 서로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게 되고 갈라지는 케병 오순도순 잘 살아갈 수도 있지요. 우리들은 서로 마음의 통신을 하게 되어 있도록 서로를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따라 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무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믿음을 증명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알고 있고 믿음의 여가자로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알니다. 하지만 일면서 믿음 더 좋을 것 같은데 주인공에 대해서는 알듯하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른다고 하는데도 계속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동현·강원 원주시 원동)

모르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내게 질

문을 하면서도 모릅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먹는 것, 그런 것을 다 누가 할니까? 참나찰나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게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전에 어느 스님이 술을 걸어놓고 팔죽을 쑤는데 죽이 끓으니까 여기 저기서 불룩불룩 죽방울이 솟더라 말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죽 솟을 들여다보면서 주걱으로 방울방울 솟는 것을 내려치면서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요놈도 주인공요, 요놈도 주인공... 그래요 되겠지요. 방울방울 솟는게 다 팔죽이지 다른 것 아니지요? 그러나 뭘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참나찰나에 고정됨이 없이 나두고 돌아가는 것, 그게 주인공 죽 말하면 팔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나찰나에 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 따지고 말고 할 겨를이 있었어요? 그냥 주인공! 하고 믿고 나가면 그뿐이지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생각도 죽방울이고 안다는 생각도 죽방울이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게 다 방울방울 죽방울, 팔죽이란 말입니다. 방울방울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르시겠어요?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전생, 후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입니다.

참나찰나 나투는데 '나'라고 고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이지요. 내가 공이니 삼세도 공! 입니다. 그러면서 보고 듣고 하고... 다 하지요. 그래서 이처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고 들어가라, 그러다보면 알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려거든 내가

누구인지부터 따져보고 궁금하거든 '주인공, 너만이 너를 증명할 수 있지 않아요?' 하고 믿고 들어가보세요. 이게 이처럼 따져서 알 것 같으면 왜 스님네들이 20년 30년씩 이 공부에 매달리겠습니까?

올해 심재인데 피할방법은

문 올해 신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심재가 들었다며 여러가지로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불자로서 이를 어떻게 소화해야 바른 길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조양순·서울 서초구 서초2동)

예로부터 심재판안이 어떻다느니 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달은 어떻고 어느 해는 어떻고... 갑자를죽 따져서 사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사가는 일에 무슨 달은 좋고 무슨 달은 피해야 한다. 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쪽 서쪽 동방 놓아버리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당당한 권리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입니다.

주인인 우리가 무슨 방위가 어찌고 날이 어찌고 하는데 그달려서야 되겠습니까? 불자라면 부처님께서 뒤라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금강경, 화엄경에... 아니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놓아버리세요. 깨를지키는 한 생각 돌려서 털어버리세요. 팔자 운명도 한 생각 돌리는데 달려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양성교육기관

신입생 모집

■ 제7기 포교사 과정 ■ 제9기 교리반 ■ 제1기 수화반

구분	제7기 포교사 과정	제9기 교리반	제1기 수화반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남·여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교육기간	1년(1997년3월~1998년2월)	6개월(1997년3월~8월)	6개월(1997년3~8월)
교육일시	매주목·금요일 오후 7시~9시	매주금요일 오후2시~4시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원서접수	1997년 1월10일~2월28일(선착순 마감)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2매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원서접수비	3000원		
등록금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40000원	입학금 3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10000원
특 전	본대학 학칙에 따라 수료생에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로 품수할	수료자는 포교사과정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종단과 협의하여 특수포교사로 품수할 수 있도록 추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사무국(T.051-818-8659, F.807-7351)으로 문의바랍니다

제7기 포교사 과정 (강의순)

과목	강사	과목	강사	과목	강사	과목	강사
불 타론	이하우학장	반야사상	법륜스님	불교사상사	유동호법사	선 사 상	선과법사
근본불교사상	이욱태법사	법화사상	삼산스님	경토사상	우진스님	불 교 미 술	김용환박사
인도불교사	정인 스님	화엄사상	각성스님	한국불교사	이하우학장	불교사회복지	고우익법사
중국불교사	곽만연교수	비교종교학	최봉수박사	포 교 론	현익재법사	불 교 의 식	문구영스님

* 야외법회 및 수련, 수계식 등은 별도 학사일정에 의거 실시하고,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정연스님(영주암 회주), 백파스님(금강암 회주)등의 특강을 실시함

제9기 교리반 과정

불교학 개론, 불교문화사, 경전 개설, 불교미술, 참선실수, 승의 및 특강을 개설하여 교계의 대덕스님, 교수, 법사, 본 대학 강사가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함.

제1기 수화반 과정

수화기초는 동서대학 수화강사인 강주수 선생님이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하며, 불교교리들 본 대학강사가 월 1회 강의함.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8/2) 성원서면주차빌딩 2층 화엄회관(부산진구청)
☎(051)818-8659, FAX807-7351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태혈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오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오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감상선으로통발한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항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